

삼성전자, 정전 피해액 90억원 미만

기흥 반도체 공장서 웨이퍼 중심으로 ... 정확한 내부분제 파악 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정전에 따른 피해규모가 90억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3월24일 오후 기흥공장에서 발생했던 정전으로 인한 피해액이 25일 오후 4시까지 90억원 미만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피해는 주로 웨이퍼 등 공정이 진행 중이던 제품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전 원인에 대해 “외부선로의 문제라기보다 기흥사업장 내부분제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26>